

현 불 뉴스

신학원 전국분원장회의

(재)신학원(이사장 정일)은 '96 가을 전국분원장 회의'를 오는 20~21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집행부와 대화할 수 있도록 8·27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분원장회의는 종단과의 화합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향후 재단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분원장회의에서 '사찰환경보존의 현황과 그 과제-연기영교수(동대 법학)' '지방자치와 불교-서석재의원(경각회장)'의 강의가 펼쳐진다.

학업사 장학법인 설립

구례 화엄사(주지 종열)는 최근 주변상가를 2억5천여만원에 인수하고 내년부터 1억원의 상가수입금으로(가칭) '도광·도천장학법인'을 설립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선원사지 발굴개토식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지난 4일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선원사지(사적 259호)에서 발굴 개토식을 개최했다. 실봉스님(무애원)을 비롯 지역선원과 승려(동국대)총장 홍윤식(동대 박물관장)교수를 비롯 지역 기관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공주불 환경캠페인

동해추방은동불교인연합(회장 성타스님)은 지난 2일 대호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환경캠페인을 벌였다. 성타스님을 비롯 공주불회원 백여명이 참석, 금산사 안 모악랜드 및 해인골프장전설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맑고...' 경남본부 창립

맑고창기롭게 경남본부(회장 홍고스님)는 20일 창원KBS홀에서 창단식 및 법정스님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광주·전남 범종단 불교종중 국가간담회특별위원회(대회장 영조)는 지난 15일 광주구동체육관에서 3천여명의 사부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티베트 성 라마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대법회를 개최했다.

신병교육대 군법당 건립불사 '한창'

재정 어려움속 광복통일사·연무사등 6곳 신·증축

군불교 포교의 원산지 신병교육대 군법당 건립이 활발한 가운데 대부분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자들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신병교육대 건립되고 있는 곳은 25사단 비룡사(법사 실성연) 6사단 청원사(법사 성관) 5사단 광복통일사(법사 이종인) 9사단 백마사(법사 고현 등) 법당의 신축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법사 경연수) 법당의 증축, 3사단학교 교육관 이점등 6곳에 이르고 있다.

25사단 비룡사는 지난 10월 중순 신병교육대 법당 기공식을 갖고 1백여명이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건평 55평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25사단 신교대 법당은 현재 40%의 공정이 오는 11월 중순경 준공예정이나 아쉽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6사단 청원사도 오는 15일

기공식을 갖고 8천만원에 예산이 14억원이 확보되지 못해 건립 계획이 미뤄진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12월 초 또다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연운동을 통해 군법당 건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수재로 인해 신교대 군법당이 유실된 5사단 광복통일사는 1백~1백50평 규모의 법당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1억여원의 법당건립 예산을

이해 93년 기공식 이후 공사비 14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건립 계획이 미뤄진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12월 초 또다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연운동을 통해 군법당 건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수재로 인해 신교대 군법당이 유실된 5사단 광복통일사는 1백~1백50평 규모의 법당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1억여원의 법당건립 예산을

현재 3천여만원의 확보한 광복통일사는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자비회(회장 박미영) 13명의 회원들은 수재로 유실된 5사단 신교대법당 기공마련을 위해 김과 오정어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각 단체와 사찰에도 편지를 보내 불자 동참(문의: 0355) 835-3071 32-0719)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불교계의 군포교는 총 32개소 국군 신병교육대중 군법당은 6곳에 불과해 100%에

육박하고 있는 타종교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현실이다. 1개사단에 1개사찰만이 인가되는 군현실에서 신교대 법당마련은 군법사의 어려움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실정이다. 거기에다가 기독교는 재력을 갖춘 군선교 후원회에서 군선교에 연 50억, 천주교는 15억의 집중적인 기금이 후원되고 있다. 이에비해 불교계는 5천만인 지원에 불과해 대박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군순단은 신교대법당마련 캠페인과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연천=김원우 기자)

통일불교학당·장학제등 신설키로

평불협 임시총회서

조계종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지난 10월 25일 동보성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97년도 사업계획 및 새로 위촉한 임원진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 평불협은 평불협의 96년 활동을 대체적으로 부진했다고 자평하고, 97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특별분

과위원회를 신설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사단법인체를 설립, 통일정책포럼 개설, 통일불교학당 개설, 통일장학제도 신설, 해외 불교전문가초청 심포지엄개최, <북한불교연구>총서를 발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평불협은 회원배가사업, 평불협회원 수련대회 등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성직자 전용병동 생겼다

강남병원 11일개원... 8층 스님·목사·신부 이용토록

성직자만을 위한 병동을 갖춘 최첨단 의료센터가 개원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강남병원(이사장 김동운)이 바로 그것.

강남병원은 기존의 병원과는 달리 스님, 신부, 목사 등의 성직자만을 위한 병동을 8층에 마련했다. 성직자병동은 예약제로 실시되며 접수에서부터

진료 및 입원 등 모든 의료행위가 전문화, 간소화되어 있다.

김동운 이사장은 "대부분 병원이 접수에서 진료까지 약 2~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님들의 경우 진료를 기피해 오려라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종생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는 성직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직자 병동을 별도로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종단 관계자는 "선본사 시주금은 종단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종단차원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선 지역만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있는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동운 이사장은 "대부분 병원이 접수에서 진료까지 약 2~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님들의 경우 진료를 기피해 오려라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종생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는 성직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직자 병동을 별도로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종단 관계자는 "선본사 시주금은 종단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종단차원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선 지역만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갯바위 시주금 지역불사에 환원"

대구불교단체 요청

지난 94년 6월 조계종 개혁회의에 의해 총무원직할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팔공산 선본사 갯바위(관북성조약사역래와상) 시주금의 지역불교계로의 환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 대구직불협, 대불청 대구지구, 대한불교대불회 등 대구지역 10여개 신행단체는 지난 10월

31일 '대덕스님들께 올립니다'는 호소문을 통해 선본사 갯바위 시주금중 절반은 종단에, 나머지 절반은 불교회관건립 청소년포교사업 등 지역불사에 회향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도 조인한 갯바위 시주금 환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총무원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본사의 한 스님은 "지역불자들이 내 시주금이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고스란히 종단에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회를 통해 지역사찰법이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종단 관계자는 "선본사 시주금은 종단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종단차원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선 지역만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운영

승가원, 안암동에 내년 1월 순회재활사업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최근 성북구에 거주하는 14세에서 12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설치와 순회재활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탁아복지시설로, 승가원은 성북구 안암동

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승가원은 주간보호센터를 내년 1월부터 성북구 장애아동 20여명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의복탈착훈련 신변처리훈련 물리치료 등의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승가원은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요보호대상자를 직접 방문, 의료서비스는 물론 사회재활프로그램 아동목욕 등 순회재활사업을 펼친다. 한편, 승가원은 주간보호센터와 순회재활사업 이용대상을 점차적으로 서울시 장애아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불우이웃돕기 자비대잔치

21일 마산불교자비원... 연예인 축하공연도

마산 불교자비원(원장 일해)은 오는 21일 마산 MBC홀에서 불우노인 위한 '자비의 대잔치'를 개최한다. 마산·창원지역에 거주하는 무의탁·독거노인 약 5백여명의 일동준비마련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1부 서암스님(전 조계종 중흥) 초청법회 2부 심

진스님을 비롯, 불자가수 현숙 변혜림 김태근씨 등 연예인들이 참석 축하공연을 펼친다. 이밖에도 노인들을 위한 살풀이, 오광대, 각설이 등이 부대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자비원장 일해스님은 "자비행사를 경례화 하겠다"고 말했다.

마음 진리를 밖에서 찾으시...

진리란 자기 안으로 찾아가고 찾기보다는 밖으로 대성하게 놓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진리란 더욱 먼 여적 여적 있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령제회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的 佛塔다라니"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佛탑다라니에서,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 이 氣(기)는 심신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佛탑다라니를 통해, 마음, 몸, 운세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매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이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선담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제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세게 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계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원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 현재 살고 있는 병환은 낫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를 낳는지? 등 어떠한 일이나 금강경 선담다라니에 적어 넣고 기(氣)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기(氣)가 나오면 성공률(80~90%)는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많은 운강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매 병되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있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佛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키면, 이런 영들이 떠나 들 켜 켜 되돌아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옵니다.
 ⑤ 佛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하지 않고 단순히 부처님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편이나, 타종교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거나 기(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 테스트 방법과 처방전

스님들께
 수묵된 스님들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비대잔치
 (이것은 포교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기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향과 재탄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하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에게 사후에 주시므로, 다스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佛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 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佛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들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경남지역에 대한 불교 상담 문의의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불교마라미 건강연구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 기타지역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49)34-9490, 39-1906, 아간(0342)706-3060

六庚申道通 제5회 법회 안내

大道人되는 六庚申道通 제5회 기도법회가 양력 11월18일(음10월 8일 해시)에 입제하여 11월19일(음 초 9일) 밤 해시에 회향하오니 동참하시어 일만이천 도인 대열에 입문하십시오.

하늘이 인재를 만들려면 어려운 역경과 고행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자만이 도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한 자리인 만큼 말문과 문자와 아상과 학문을 초월한 자리인 고로 하늘, 땅이 그 소임을 맡기려면 근본심지를 시험하는 것이 근본 진리 이거늘 그 고비를 넘기는 기도가 육경신 기도이며 이 기도의 수행을 통하여 천안통, 타심통, 천이통, 누진통, 신족통, 숙명통을 성취하여 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년 10월9일 제5회 경신일은 동·서양 사방에 모든 영계나 사방법계 영혼들의 천문이 열려 천신삼계, 지신삼계, 영신삼계와 木土水金日月星神 모든 비밀장을 통할 수 있는 기회이며 1만2천 道人대열에 賢知靈通 4천명 智知靈通 4천명 聖知靈通 4천명이 모두 靈界의 말은바 분야의 심지 근본에 맞게 통할수있는 기회를 참고하시어 입문하시면 누구에게나 한가지 소원은 꼭이룰수 있으며, 고통을 여의는 기도 인것입니다.

* 동양철학 및 기문둔갑 연택음택 지도함

부적 제작 비법 공개

아무나 제작하거나 사용하면 무서운 재앙을 본인이나 받거나 당하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부적을 쓰거나 작법을 하시는 분은 六庚申 기도를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을 하면 듣지도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육경신 第5회 기도 법회시 공개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어 부적의 비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大道眞人이 되는 六庚申 주문

입제일 : 1996년 11월 18일(음10월 초 8일) 밤 10시
 해제일 : 1996년 11월 19일(음10월 초 9일) 밤 해시
 회 비 : 5만원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 화 : (02)821-6622 · 야간 923-3110
 육경신도통회 태일선원장 법사 태일 합장